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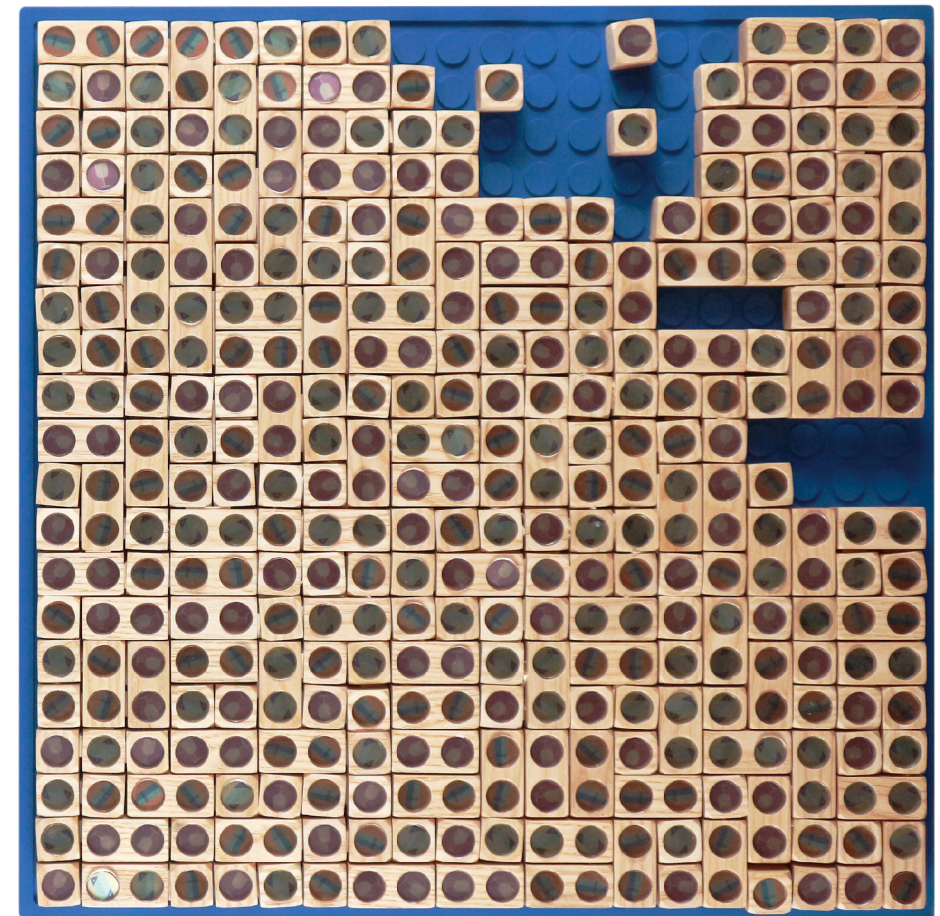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미래를 여는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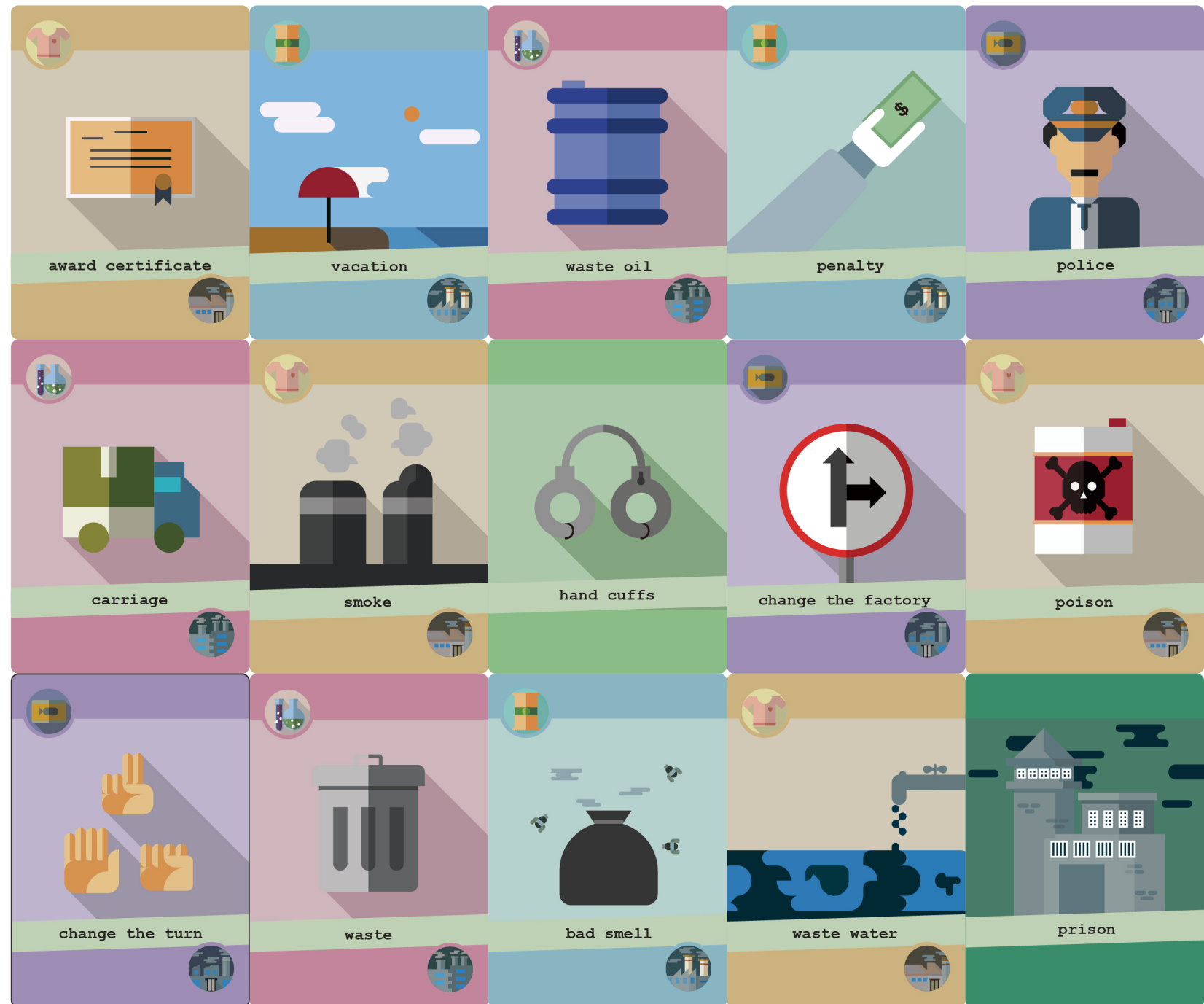
“PLAY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스며든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 PLAY를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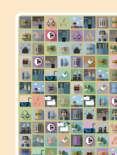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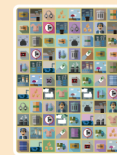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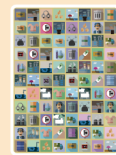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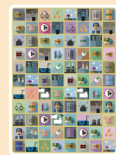
디마시크 Dimashq

미세먼지가 대두되는 요즘 환경 오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시리아의 수도 디마시크는 공업 지역으로 석유, 시멘트,
통조림, 화학 공장 등 여러 분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통해 각 공장의 사람들이 되어
불법행위를 하는 역할을 하며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고 방안을 강구한다.



디마시크 Dimashq

게임 방법



1

카드를 8장씩 랜덤으로 나눠 가지고
남은 카드를 가운데 뒤집어 놓고
그 옆에 한 장을 앞이 보이게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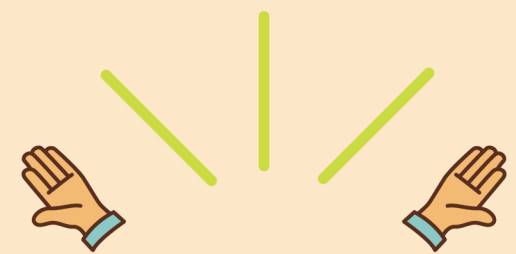
2

가운데 앞면이 보이는 카드와 공장 분야나
오염물질 중 한가지 조건이 같은 카드를
앞면이 보이는 카드 위에 내려놓는다



3

버릴 수 있는 카드나 내고 싶은 카드가
없다면 카드 더미에서 1장을 가져온다
(대신 카드를 가져가면 차례는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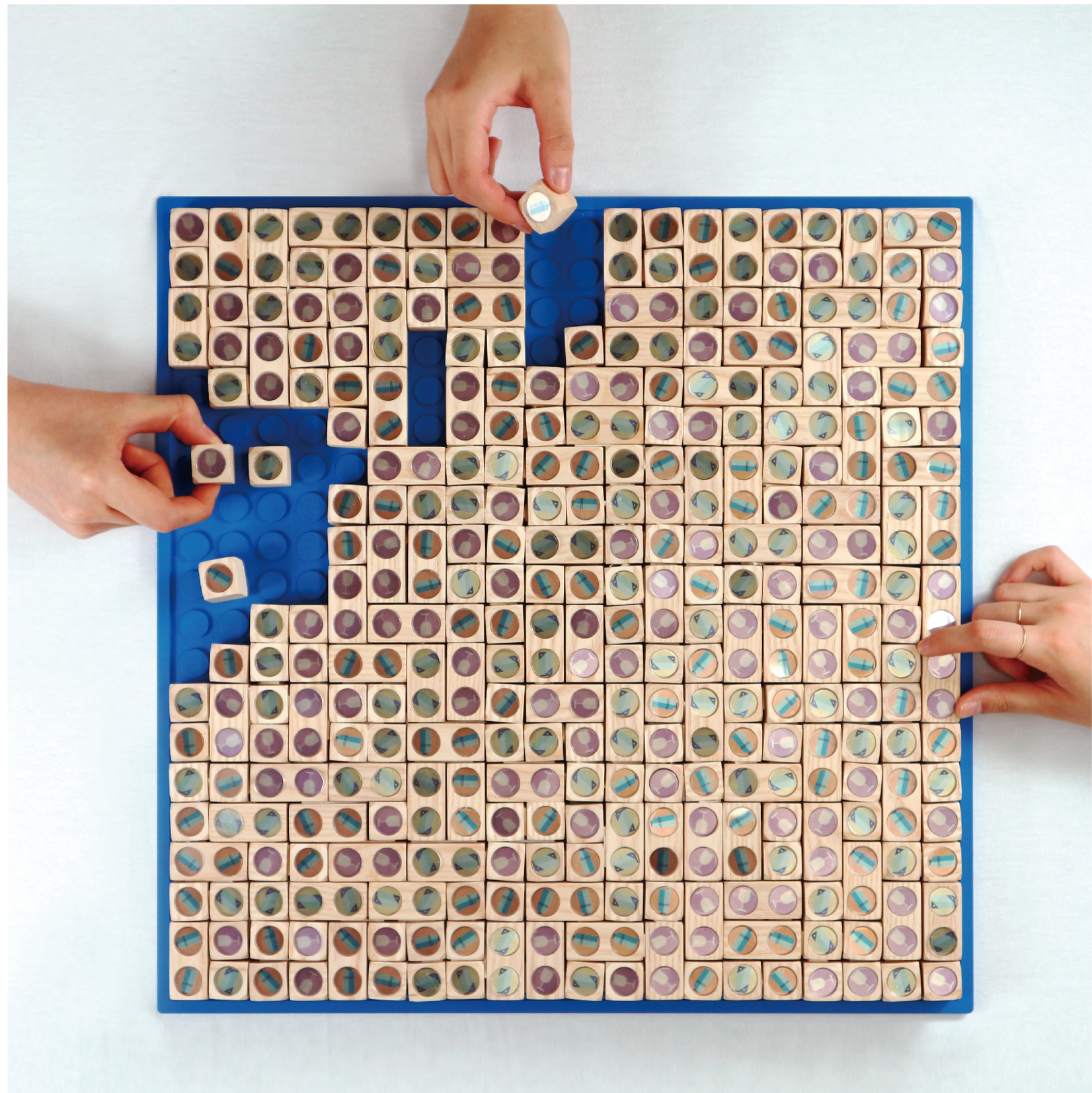


4

손에 남은 카드가 없는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CC에 구 CC에 구

마구잡이로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북태평양에 인공 쓰레기섬이 생겼다.
그로 인해 고아가 된 바다사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고
해양 오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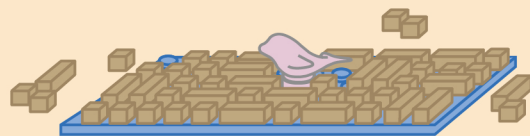
CC에 구 CC에 구

또리의 이야기

쓰레기 더미로 인해 먹이를 찾기 어려워진 북 태평양 한가운데
엄마 아빠 바다사자와 아기 바다사자 또리가 먹이를 찾아 떠났어요.
쓰레기 더미를 지나가는데 그때 또리의 꼬리에 그물에 걸려
엄마와 아빠를 놓쳐 잃어버렸어요.
또리가 힘겹게 쓰레기 섬 위로 올라와 우는데
이때 사람들이 탄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되어
쓰레기를 건지고 바다사자를 구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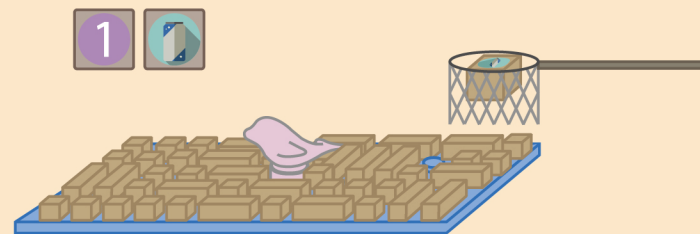
또리 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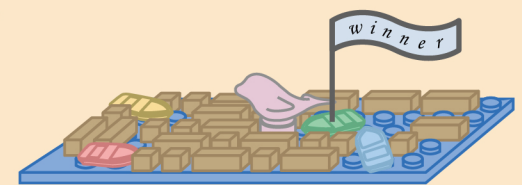
1
중앙에 바다사자를 놓고
블록을 판에 다 채운다.



2
주사위 2개를 굴린다.



3
굴린 주사위에서 나온
쓰레기 종류와 숫자만큼
블록을 뜯쳐로건진다.



4
블록을 빼며 섬의 한가운데
먼저 도착하여 바다사자를
구출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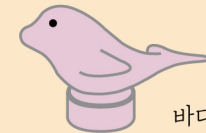
주사위



뜯채



플레이어 배



바다사자 또리



블럭판

PLAY



08. 제품디자인

JUST KIDDING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7점 : 희로애구애오욕

바쁜 생활과 기계적인 삶 속에서 점차 결여되어만 가는 현대인들의 감정을
7가지 감정이 담긴 7개의 제품을 통해 다시 되찾아 극대화해주고자 하였다.
진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적당한 장난' 으로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지연
dl9741@naver.com

박계영
kyo0oky@naver.com

기쁨 희(喜)

‘기뻐하시게’ 달력

파란 하늘 한번 올려다 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여유 없는 삶.
달력의 빨간 숫자만을 기다리는 현대인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을까.

휴일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기뻐하시게’ 달력은,
이를 보는 이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기쁨을 선사한다.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전해주고자 한다.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성낼 로(怒)

뿌지직 차

웃음과 화남을 동시에 느껴본 적이 있는가.

‘뿌지직차’ 는 변기 모양의 티백 손잡이와
 똥 모양의 티백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차가 우려나면, 갈색 빛의 찻물이 마치 변기속의 똥물처럼 보인다.

사랑 애(愛)

‘내가 닦아줄게’ 칫솔

연인들이 항상 하는 말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 줄 수 있어”

50cm의 긴 칫솔로 서로의 치아를 3분간 닦아주자.
양치가 끝난 후, 서로의 감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두려움 구(懼)

‘잘 모셔라’ 핸드폰 케이스

새하얀 폰 케이스에 오물이 묻는다면?

먼지가 잘 묻는 니트 배경에 ‘잘 모셔라’ 라는 네글자의 궁서체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일회용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니트 소재가 실재가 아닌 배경이므로 속임수에 허탈한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 포인트!

슬플 애(哀)

‘너무 짧은 우리’

짧아졌다고, 쓸모없어졌다고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몽당연필의 슬픔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몽당연필의 집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수명이 너무 짧은 몽당연필 한 다스와 그 연필을 살려주는 연필깎지이다.
너무 짧아 슬픈 몽당연필의 현실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현한 제품이다.



미워할 오(惡)

‘마실테면 마셔봐’ 머그컵과 빨대

미움받을 용기는 커녕, 누군가를 미워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지금의 나.

바닥 면에 문구가 있는 머그컵과 놀리는 듯한 긴 빨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미움을 받아보자.



욕심 욕(慾)

‘조물딱 팡팡’ 클립보드

만지고 싶으면 만져라!

귀여운 엉덩이 모양의 복숭아가 달린 손목 받침대 클립보드이다.
조물딱 조물딱 자꾸 만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